

지속되는 개별 종목 영향 속 혼조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개별 기업 호재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
- 장종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인프라 협상 난항 소식으로 매물 출회되며 변동성 확대
- 더불어 코로나 관련 제약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점도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
- 다만, 고용지표 개선과 정부의 여행 등급 발표 등으로 경제 정상화 관련 기대가 유입되며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자 재차 상승 전환하는 등 보합권 등락
- 다우 -0.09%, 나스닥 +0.31%, S&P500 +0.02%, 러셀2000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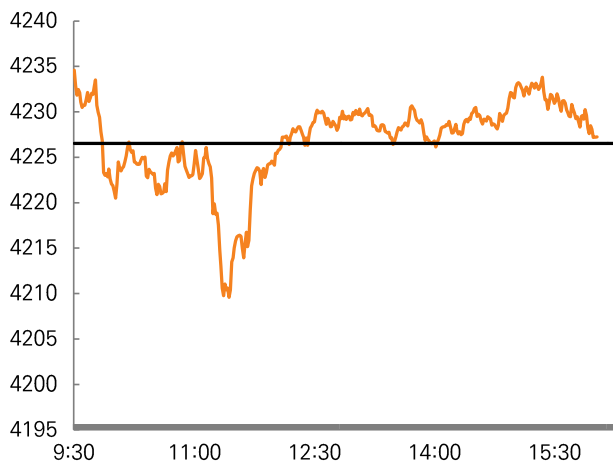
특이종목

- 테슬라(-0.25%)는 중국 판매량 발표로 장중 3% 상승→비트코인 급락으로 하락 전환
- 코인베이스(-4.66%), 마이크로 스트레지(-2.22%), 모고(-3.13%) 등도 동반 하락
- 아마존(+2.07%)은 온라인 약국 본격 시작과 프라임 데이 기대 심리로 강세
- 월 그린 부츠(-1.03%)는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 본격화 소식 여파로 하락
- 펄스스틸리(+10.85%)는 사이트 다운 문제를 해소 했다고 발표하자 급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68% MSCI 신흥 지수 ETF는 0.4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6.95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8% 하락. KOSPI는 약 보합 출발 예상
- 미국 주식시장에서 경제 정상화에 따른 여행, 레저, 항공 등이 상승하는 등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 관련 종목군의 강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
-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 공급망 해결 테스크포스’를 발표한 이후 마이크론(-4.18%)이 급락하고 AMAT(-2.24%) 등 반도체 장비 업종이 약세를 보인 점은 부담
- 이를 감안 지수 변화 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자수등록률	Close	D-1	자수등록률	Close	D-1
KOSPI	3,247.83	-0.13	홍콩항셍	28,781.38	-0.02
KOSDAQ	986.12	+0.03	영국	7,095.09	+0.25
DOW	34,599.82	-0.09	독일	15,640.60	-0.23
NASDAQ	13,924.91	+0.31	프랑스	6,551.01	+0.11
S&P 500	4,227.24	+0.02	스페인	9,153.60	-0.11
상하이종합	3,580.11	-0.54	그리스	913.48	+1.27
일본	28,963.56	-0.19	이탈리아	25,809.16	-0.0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경기 민감주, 아마존 강세 그리고 비트코인

미 증시는 업종별 이슈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등 종목 장세가 뚜렷한 모습. 미국 국가 경제 위원회에서 이날 “미국 경제 정상화가 되고 있고 글로벌 성장의 원동력” 이라고 주장. 더불어 공급망 병목 현상은 일시적이며 향후 몇 주 내에 스스로 해결 될 것이라고 언급. 특히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러한 병목 현상은 미국 경제가 예상 보다 빠른 회복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발표.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61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4단계)에서 여행 재고(3단계)로 일부 완화 했다는 발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여행, 레저, 소매판매, 항공, 에너지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며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

한편,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인프라 관련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날 공화당 협상팀의 카피토 상원의원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없다” 라고 주장. 물론 여전히 협상은 타결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차기 협상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협상을 마감해 불확실성을 이어감. 관련 소식에 미 증시는 장 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타결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산업재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 특히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 상원 의원 말과 배치되는 “인프라 협상은 교착 상태가 아닌 여전히 진행 중이며 타결을 위한 여러 경로가 있다” 라며 전일과 달리 온건한 언급을 한 점이 산업재 상승 요인

아마존(+2.07%)의 강세가 뚜렷한 점도 특징. 아마존은 온라인 약국을 통해 혈압과 당뇨 등 일반적인 건강관련 약품을 제공 하기 시작했다고 발표. 지난해 11월 아마존은 월 그린 부츠(-1.03%), CVS헬스(-0.60%), 월마트(-0.76%) 등과 의약품 판매 경쟁을 위한 약국을 시작. 이 소식으로 관련 종목은 물론 MCK(-1.59%) 등 의약품 유통 회사들도 부진.

아마존의 상승 요인 중 또 하나는 6/21일 시작 되는 2일간의 프라이م 데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된 점. 이날부터 고객들은 할인이 적용 될 수 있으며 프라이م 회원들에게는 10달러 크레딧이 제공. 더불어 프라이م 비디오 등 스트리밍 할인 또한 장려되고 있어 관련 구독수의 증가 기대를 높임. 이러한 호재가 유입된 아마존은 강세를 보인 반면 약품 판매 회사들과 스트리밍 회사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

비트코인이 한 때 3만 1천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채굴 업체들의 매물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더불어 최근 밈 주식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자 일부 투자자들의 이탈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음. 이러한 비트코인 급락은 중국 자동차 판매 증가 소식에 3% 상승하던 테슬라(-0.25%)를 하락 전환하게 만들었으며, 그 외 관련 종목군의 약세를 부추김. 대부분 기술주 중심이라는 점에서 나스닥이 0.7% 상승에서 장중 0.4% 하락 전환 했던 요인 중 하나

전반적으로 미 증시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있었으며 장중 갑작스러운 지수의 하락 전환 요인은 보잉(+0.04%)과 월마트(-0.76%) 등 일부 기업들의 변화에 따른 것. 그 외 시장 참여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ECB 통화정책 회의, FOMC 등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모습. 대체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변화가 확대 되고 있지만 지수 전체로는 변화가 제한되는 양상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 강세,

테슬라(-0.25%)는 5월 중국 판매량이 루머였던 1만건 이하가 아니라 약 2만 2천대 판매 했다고 발표되자 3% 상승 하기도 했으나 비트코인이 3만2천달러로 급락하자 하락 전환하며 마감. 비트코인 급락으로 코인베이스(-4.66%), 마이크로스트레지(-2.22%), 모고(-3.13%), 라이엇 블록체인(-2.64%) 등 관련주도 하락. 아마존(+2.07%)은 온라인 약국 본격 시작과 프라임 데이 기대 심리로 강세. 월 그린 부츠(-1.03%)는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 본격화 소식여파로 하락. 클로버 헬스(+85.82%)는 새로운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레드잇에서 가장 많이 언급 된 이후 급등. 웬디스(+25.85%)도 관련 소식에 급등.

네트워크 회사인 페스틀리(+10.85%)는 장 시작 전 일부 사이트 다운을 야기시켰지만 관련 문제를 해소 했다고 발표하자 급등. 델타항공(+2.08%)은 비즈니스 여행 증가 기대로 투자여건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 지역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1.06%)도 동반 강세. 정부의 일부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 하향 조정하자 부킹닷컴(+0.23%), 매리어트(+2.27%) 등 여행 레저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이는 경제 정상화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갭(+2.87%), 로스스토어(+0.88%), 율타 뷰티(+2.56%) 등 소매 판매 업종이 강세를 보임.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98%	대형 가치주 ETF(IVE)	-0.13%
에너지섹터 ETF(OIH)	+0.13%	중형 가치주 ETF(IWS)	+0.38%
소매업체 ETF(XRT)	+1.75%	소형 가치주 ETF(IWN)	+0.99%
온라인소매 ETF(IBUY)	+2.31%	대형 성장주 ETF(VUG)	+0.11%
금융섹터 ETF(XLF)	-0.26%	중형 성장주 ETF(IWP)	+0.45%
기술섹터 ETF(XLK)	+0.01%	소형 성장주 ETF(IWO)	+1.0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9%	배당주 ETF(DVY)	-0.06%
인터넷업체 ETF(FDN)	+0.3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0%
리츠업체 ETF(XLRE)	+0.5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0%
주택건설업체 ETF(XHB)	+0.60%	미국 국채 ETF(IEF)	+0.29%
바이오섹터 ETF(IBB)	-0.13%	하이일드 ETF(JNK)	+0.07%
헬스케어 ETF(XLV)	-0.31%	물가연동채 ETF(TIP)	+0.10%
곡물 ETF(DBA)	+0.42%	Long/short ETF(BTAL)	-0.30%
반도체 ETF(SMH)	-0.82%	모멘텀 ETF(MTUM)	-0.07%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7.89	+0.88%	+3.15%	+3.32%
소재	544.71	+0.16%	-1.84%	-0.84%
산업재	884.52	+0.26%	-0.64%	-0.74%
경기소비재	1,378.83	+0.96%	+0.09%	-0.90%
필수소비재	725.16	-0.85%	+0.26%	-0.74%
헬스케어	1,420.48	-0.36%	+0.47%	-1.77%
금융	632.49	-0.20%	-0.28%	+0.95%
IT	2,455.77	+0.02%	+1.62%	+3.25%
커뮤니케이션	259.45	-0.23%	+0.60%	+2.59%
유틸리티	328.02	-0.91%	+0.15%	-3.12%
부동산	282.16	+0.51%	+2.78%	+6.2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경제 정상화 관련주 Vs. 반도체 업종

MSCI 한국 지수 ETF는 0.68% MSCI 신흥 지수 ETF는 0.4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16.95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8% 하락. KOSPI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마감.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 되었으나, 기관 특히 프로그램으로 추정되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변화를 제한. 이는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 것으로 예상.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장중 변동성이 이어졌으나, 개별 종목, 업종 중심의 변화가 특징인 모습을 보여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업종 차별화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

한편, 미국 주식시장에서 경제 정상화에 따른 여행, 레저, 항공 등이 상승하는 등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 관련 종목군의 강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 특히 인프라 투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해결 기대심리 또한 여전하고 국제유가가(WTI 기준) 70달러를 넘어서고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이 4% 넘게 급등 하는 등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된 점은 증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 공급망 해결 테스크포스’를 발표한 이후 마이크론(-4.18%)이 급락하고 AMAT(-2.24%) 등 반도체 장비 업종이 약세를 보인 점은 부담. 바이든 행정부 발표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차익 욕구를 자극 했다는 평가가 많음. 결국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4% 하락한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지수 변화 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채용 공고 급증

4월 미국 채용공고는 지난달 발표(828.8만건)이나 예상(804.5만건)을 상회한 928.6만건을 기록. 특히 경제 정상화 속 숙박, 음식료 업종(34.9만건) 등에서 급증. 한편, 민간 부문 이직률은 지난달 2.7%를 크게 상회한 3.1%로 정부를 포함한 전체 이직률도 지난달 2.5%를 상회한 2.7%를 기록. 이러한 채용공고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난에 대한 우려가 부각

미국 5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지난달 발표(99.8)는 물론 예상(100.7)을 하회한 99.6으로 발표. 그렇지만 여전히 역사적 평균인 98을 상회하고 있어 긍정적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WTI,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상회

국제유가는 경제 정상화에 따른 원유 소비 증가 기대가 유입되며 WTI 기준 70달러를 상회. 특히 미 국무부가 61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 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 이로 인해 하반기 소비 증가 기대 심리를 자극하자 WTI 기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상회하며 마감

달러화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특히 미국 채용공고 급증에 따른 임금 상승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진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 더불어 미국 여행 경보 완화 등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된 점도 영향. 다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일부 유입된 점은 강세 제한 요인

국채금리는 장 초반 고용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 하기도 했으나, 채권 수요 증가로 하락 전환. 이날 있었던 3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3배)을 상회한 2.47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51.1%)를 상회한 54.2%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 증가 소식이 전해지자 금리는 하락 전환

금은 달러 강세로 소폭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불구 경제 정상화 기대 속 상승. 곡물은 예보와 달리 비 보다는 더운 주말 날씨가 예보 된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작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4.12% 급등 했으며 철근도 0.89%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0.05	+1.18	+3.44	Dollar Index	90.110	+0.18	+0.31
브렌트유	72.22	+1.02	+2.80	EUR/USD	1.2174	-0.13	-0.32
금	1,894.40	-0.23	-0.56	USD/JPY	109.48	+0.21	0.00
은	27.731	-1.02	-1.32	GBP/USD	1.4154	-0.20	+0.03
알루미늄	2,452.50	+1.09	-0.67	USD/CHF	0.8968	-0.10	-0.06
전기동	9,964.00	+0.64	-2.74	AUD/USD	0.774	-0.18	-0.18
아연	3,016.50	+0.57	-1.55	USD/CAD	1.2111	+0.24	+0.33
옥수수	609.50	+1.12	+5.63	USD/BRL	5.0436	-0.05	-3.36
밀	685.00	+0.74	-1.23	USD/CNH	6.4007	+0.21	+0.28
대두	1,457.00	+1.18	+4.29	USD/KRW	1114.20	+0.12	+0.75
커피	159.85	-1.45	-1.96	USD/KRW NDF1M	1116.95	+0.56	+0.7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31	-3.73	-7.48	스페인	0.430	-4.20	-3.80
한국	2.112	-4.30	-7.80	포르투갈	0.428	-4.00	-3.50
일본	0.078	-0.50	-0.50	그리스	0.856	+3.10	+3.10
독일	-0.224	-2.60	-4.60	이탈리아	0.861	-5.20	-3.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